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鎭
編輯 鄭宗澤
印刷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로番號 7500875
對營口座 010017-31-062565

【1】月刊

1976. 4. 13 贈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1월 1일

第190號

새해 祈願하는 마음 母校의 발전으로...



◇구립 10일 열린「同門結束의 밤」: 三府요인과 유력동문을 비롯 母校總長·學長·補職교수등 2백여동문이 참석한 送年の 밤은 성황을 이루었다. 母校발전과 同窓會 활성화를 위한 단합의 意志도 결집된 이날의 모임은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冠岳春秋

1994년은 母校가 冠岳캠퍼스로 옮긴지 20년이 되며 1985년 法官養成所가 開所한지 1백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대학교의 前身을 法官養成所로 본다면 1백년간 近代學問을 교육해 온 셈이다. 그동안 京城專修學校 後身인 京城法專과 京城帝大, 京城高商, 京城高工, 京城高農등과 통합하여 서울대학교가 설치된지도 5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흘러져 있던 캠퍼스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冠岳으로 移轉한 지도 여든 20년이 된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의 부지는 줄어들었으나 건물은 늘어났고 體育館, 圖書館, 博物館, 文化館등의 附帶施設은 完備한만큼 웅대해졌다.

학생들은 늘어나 新築建物들도 포화상태에 있다. 科學技術의 落後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工大는 15層 자리 새 건물을 짓고 있고 사이언스 파크의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農業生命科學大學은 水原飛行場驛附近에 시달리고 있고 移轉할 것을 전제로 하여 補修조차 하지 않아 빗물이 새는 실정이다. 人文大學이나 社會系列大學의 경우에도 시설이 좋지 않으며 師範大學의 附屬學校는 서울江北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고 圖書館藏書豫算은 美國의 1백50位大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學生對敎員의 數도 劣惡하기 짝이 없다. 法科大學의 경우 敎授 1인당 學生 50명을 敎育해야 하는 실정이고, 人文社會 계열의 研究費는 보잘것 없고 研究所 중에는 研究費 한푼 없는 곳도 많다.

이에 모교의 金鍾云總長은 1994년을 學問研究과 敎育발전의 新紀元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農業生命科學大學의 冠岳統合, 附屬學校의 冠岳移轉, 사이언스 파크設立등을 公約하고 서울大學校發展基金을 1천억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으로 意欲에 찬 포부라고 하겠다. 金總長은 國家豫算에 依存해서 서울大學校를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民實에 의한 대

教育科學발전의 新紀元

學發展을 공약하고 있는 바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는 모르지만 同窓生과 學父母 社會人의 協力에 의해 달려 있다고 하겠다.

科學技術의 발달을 위한 支援는 相當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서울大學校內에 산재한 각종 研究施設은 대부분이 公營인 회사에 의한 것이다. 사이언스 파크와 같은 것도 技術發展을 위한 것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만 하더라도 科學技術에 관한 研究費는 필요한 최소한은 지원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大學校가 서울工科大学校로 되어지고 人文社會純粹科學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大學의 目的이 技術者의 양성에만 있지 않고 國家의 指導者와 學者, 文化人의 양성에 있는 만큼 大學의 百年大計는 基礎人文社會科學과 純粹科學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母校의 建學理念이 國家의 棟樑材의 양성에 있는 데도 이를 등한히 하고 技術者養成에만 치중하는 경우 祖國의 발전을 기하는 것은 緣木求魚格이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모교출신생이 師道에 진출하기를 꺼리고 農業을 외면하고 數學物理學化學研究를 게을리한 다고 하면 祖國의 科學技術 발전에 도 큰 한계가 있을 것은 明若觀火하다고 하겠다.

大統領政府는 서울大學校의 先導的役割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大學校統合化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大學의 下向平準化를 막고 大學의 優越性과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하여 서울大學校만이 아니라 日本의 東京大學이나 臺灣의 臺灣大學처럼 집중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大學校가 國際競爭力을 갖는 大學이 되어야만 他大學에도 자극을 주 國內大學의 上向平準化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過去, 母校의 발전이 祖國의 건설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未來祖國의 발전은 母校의 將來에 달려 있다는 것을 同窓生과 學父母와 社會人이 명심하여 서울大學校 발전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1994년은 진정한 母校발전의 元年이 되어야 하겠다.

동창회장 崔 立 稿

母校의 발전이 同窓會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다.
 지금 母校에선 長期發展計劃을 위해 20萬同門의 參與
 를 기다리고 있는 實情입니다. 단지 서울대出身이라
 는 矜持만을 갖기 전에 자랄듯한 母校의 後光앞에서
 우리 서울대人들은 무엇으로 報答할 것인가를 차분하
 게 생각할 時期가 왔다고 봅니다.

(同窓會任員兼任同門은重複을避했음)

(同窓會任員 兼任同門은 重複을 避效을)

立 事 卜 筮 爻

장의 인종과 장마리만 전달
 실을 아울러 가졌다.
 이날 宋海軍의 『타국만
 리에서 서울대 問問거리
 더욱 친목과 결속을 다지
 고 모교의 명예와 동창회
 의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역설, 참석 동문들을두터
 험한 지지의 바수를 받았
 또 리선선및 디나가 있
 었고 약간의 연주에 맞춰
 부부참석동문들의 무도회
 가 흥분게 진행되었다. 특
 히 이날 무용에는 시카고
 지예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
 이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新韓國건설 主導 팀웍 이뤄

民自黨·靑瓦臺요직에도參與幅 넓어

人들의 實務 또한 많은 差
 別이 있다.
 이날 內閣개편에서는 副

스들의 實務 또한 막중한
게 됐다.

단 (고딕新任)

職位	이름	學歷・略歷
總理	李會昌	57년 法大卒 대법관 중앙선관 위원장 감사위원
副總理 (企劃理)	丁哉錫	55년 法大卒 상무부장 교무 부장
副總理 (統一院)	李榮德	52년 師大卒 모교教授 법치대 총장 공직자윤리위원장
外務	韓昇洲	62년 文理大卒 日本사립大副敎 授 高麗大敎授
財務	洪在馨	60년 商大卒 제1부 기획관리실 장인원도청장
法務	金斗喜	62년 法大卒 법무부장관 검찰 총장
文化	李敏燮	62년 文理大卒 국외문화진흥위원 장 대통령비서실장
體育		
農林		
水產	金良培	63년 文理大卒 全南副知事 대 통령비서실장비서관
勞動	南載熙	58년 法大卒 조선일보 논설위원 장 日本敎育위원
交通	吳明	66년 工大卒 제1부부장관 大田 에스포트지회위원장
遞信	尹東潤	61년 法大卒 제1부부장관 韓國 장기통신공사장 차관
總務處	黃榮夏	55년 文理大卒 日本총장 회관리사장 상무총장
科技處	金始中	61년 法大卒 대한화학회 간 사장 科學館
環境處	朴欽炆	60년 法大卒 環境처차장 중앙 환경보존조직위원장
政務2	權英子	59년 文理大卒 YMC A 회장 실업위원회 서기장비서관
法制處	黃吉秀	65년 法大卒 법제처법무실장
報勸處	李忠吉	73년 行大院卒 勸業실 제4형 정조전관 비서관차장

문, 環境處長官에朴鎭旿
(61년) 法大卒(등문), 報勳
處長에李忠吉(73년) 行大
院卒(등문)이起用됐다.
또한 이날 改閣에서 留
任된同門으로는 外務部長
官인韓昇洲(62년) 文理大
卒(등문), 財務部長官인洪
在馨(60년) 商大卒(등문),
大卒(등문), 遞信部長官인
尹東潤(61년) 法大卒(등문),
科技處長官인金始中(55년
文理大卒(등문), 政務2長
官인權英子(59년) 文理大
卒(등문), 法制處長인黃吉
秀(65년) 法大卒(등문)이
다.
한편 靑瓦臺미서실에朱
夫(등문)(68년) 農大卒(등문)
경제연구원副院長이새로
신설된 農水廳수석미서관
에 임명됐다.
또한 民自黨要職中院內
總務에李漢東(등문)(58년)
法大卒과 黨代辯人에河
舜鳳(등문)(64년) 師大卒이
각각 등용됐다.

▲李晉昌總理



1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방안을 논의했다.

李圭煥명예회장(56년藥

工大卒(동문), 總務處長官
에 黃榮夏(64년 法大卒) 동문

金大奎는 지난달 13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

이날 총회에서는 92.93

中央吉病院의료원장(동)
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政發研「발족」에 同門 대거 參與
鄭宗澤 常任부회장 理事長으로

卒) ▲會員.. 姜永奎
(52日法大卒) 金東圭 56
日法大卒) 金文元 (65日
文理大卒) 金庸來 (57日
法大卒) 金長淑 (58日藥

活性化등 다집
晉州支部서도

政治發展研究會」가
주돼 동문을 사임
하제가 되고 있다.

고 있는 이 研究會
회원인 모두 1백11
이름의 8550-1

있는 同門의 名單은 다
을과 같다.

▲副理事長.. 金泰鎬

大卒)吳漢九(67년商大卒)尹在基(68년法大卒)李大淳(57년法大卒)李

간을 보낸 하루였다.

會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同窓會活

호조조를 맡아 오고
있는 이 모일은 金左
(52년 商大卒) 본회
회장과 禁文直(8년

3政治改革研究會「1

相(62日文理大卒)趙南煜(57日法大卒)黃性均(71日大專院卒)▲幹事

(51) 文理大卒 崔珪圭 永
(68) 農大卒 崔珪圭 57
년 文理大卒 崔箕善 73
去大卒 崔昌閔 66년

(회장 朱吉燾 57년工大卒)
는定期理事會를개최, 94
년도사업계획에대한검

同好會」등 소모인을 결성
치복과 결속을 더욱 다지
기로 했다.

大卒(동생이) 말고 있다. 廣問

與해 社團法人體로
칭을 변경, 이번에

延武(64日)法大卒 ▲監
事.. 朴忠淳(56日)法大

大卒

看護大 선 財團 설립으로 活路 찾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楊銀淑(조당)
▲理事：金南連(악골이시)

▲監事：宋在恩(서리별고)
양호교사：李翬子

任員 개선 意欲 넘쳐

行大院 편집위원도 充員

를 제출해 현재 인가대기 중이다.

本교는 연구재단은 모교 간호대통령의 장기발전기금, 장학기금, 평생학비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姜敏求)는 지난 11월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임원개선을 결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가선임했다. 또 鄭良謨부회장이 30만원을 특별출연행동을 공시했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수를 과 같다.

기부금으로 총 3억 1천만원(기부재산 3억원, 보통재산 1천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했으며, 앞으로 화솔연구비의 장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반 총회에서 5일 있었던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편찬위원회(金榮朴 고려대교수)·尹建永(연세대교수) 등들을 추천할 예정이다.

▲常任理事…金相國(한국통신공) 제1부사장, 金和男(경천학원) 俞澤權(오성기술학원) 李忠吉(국가보훈처차장) 趙南照(산림청차장) 등 4명이다.

「올해의 科學者賞」受賞 명예
朴健裕(박건우) HFC 개발 성공

韓國科學記者클럽이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科學者賞」 수상자로 朴健裕(64년工大化工科卒) 등 두명을 선정했다.

朴健裕의 지난 7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의代替물질로 水素不酸化炭素(HFC-134a)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朴健裕의 개발한 HFC-134a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진 염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음, 지금까지 개발한 대체물질중 가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G7 등 몇개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상태인 것이다.

프레온가스는 오는 96년부터 선진국에선 사용이 금지되고 개도국에서도 크게 규제될 산화이어서 대체물질의 공정표준을 일체미만에 부치고 있어 開途國들이 경제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의 창출

최정호 朱京植(보건의료부 차관) ▲理事: 具本泰(의원 원) 남희환(사무국장) 등 무의 26人.

1년성과 토의
齒大送年 모임

齒科大學同窓會(회장 李根宗)의 창설이

무의 노력으로 막대한 수입과 체코표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차츰 그들은 68년 KITS에 들어가 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연구원을 둘 것을 의의했었다. CFC를 대체기술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공화파사이다. 그들은 20년이상 CFC 개발에 法力, CFC C-11, CFC-20 등을 많은 프랜차이즈를 개발했다. 지난 90년 CFC規制가 본격화되면서 CFC 대체물질 개발을 위해 연구착수한지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승려와 티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전한 동무
들은 홍재문 시각소에서
지난 1년간의 동맹회를
동파 성화에 대하여 이야
기를 나누고 양양로의 활
동반영과 계획, 그리고 본
會를 전국 방방에 대한
전진을 나누었다.

1년성과 토의
齒大送年 모임
齒科大學同窓會(회장 李

春根)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5시 모교 치과대학 지하 1층에서 순환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단과 각사등 인원을 포함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李種昕회장과 李春根회장등의 축사에 이어

「同門결속의 밤」이 모저모

서울大學校同窓會는 지난 한해가 그 어느 해보다 열예를 그 뜻깊은 한해였다. 憲政 45년만에 진정한 文民政府가 출범했고 同門大統領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로 歌曲獨唱 및 國樂演奏가 있었다.

이날 崔희창은 인사말에서 同門 大統領을 탄생시킨 가장 기쁜 한해이지만 열화와 기쁨에 앞서 우리

는 두걸음을 「껴야 한다」며, 그것은 현 文民政府의 개헌추진이 잘될수만다면 곧 그 책임이 서울대인에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서울대인이 잘잘하

면이니 나의 운명과 발전
도 그르칠수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
설했다.

이어 또한 **金容植**
목교의 발전을 위해서를
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창회와 有力同門에
게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요컨대 부각되고 있다」
며 각계각층 同門들의 아
낌으로 심양면과 현면을 호
수했다.

또한 民自黨 **金대표**위원
은各界 諸君을 대표한 祝
辭에 앞서「아무런 부담없
이 참석할수 있는 동부의
자리라 마이크를 잡으면

설과 개현을 위해서를 대
인이 다 함께 참여하고자
역설했다.

한편 同窓會書 喪사부
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등단한 鄭宗澤 상임부회장
은 경과보고에서 本會가
지난 69년도에 창립된 이
래 동창회원수가 93년 12

三府요인등 2백여명 참석

李昌浩 동문 司會 숨씨 돈보여

『母校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목표는 한마디로研究中心의大學인 만큼 그에 따른 과제인 24시간 연구체제를 유지기 위한 大學院生 寄宿舍(宿舍, 學際的研究 강화를 위한 農, 獸醫 大 이전, 『리서치파크』 및 『테크노파크』와 같은 研究園地 조성 등이 필수적인

말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해 참신동우들의 폭소를 자아냈는데 20만 동문들이 입학 연도 및 학과 그리고 졸업연도는 각기 달라도 『같은 배운터에서 함께 배우고 뜻을 다지며 지냈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면서 新韓國 건

월 현재 20만 1천명을 넘어서고 單科大學同窓會 21개, 國內支部 23개, 海外支部 23개라고 밝혔다.

이날 送年晚餐會는 시종 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는데 헤드테이블에는 崔희진, 金鍾泌(문, 李分榮(문)가 전부를 담당소대표, 吳炳文(문)

(한시공포증)을 이 자
리를 같이 했다.
이이 백사부처장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귀
국한在美서울大學校同窓
會金永基君은在美同窓會
財團이사장과李種度君은
(在美同窓會총무이사)을
소개했다.
두수사는 李鼎浩君은
(68年) 文理大卒, KBS반
송위원이 진행하면서 원
숙한사회술체를 발휘했
데모교普大朴世源교수와
부인인 權景淳同門夫婦가
出演, 朴교수의 테너노장
과權교수의 피아노 반주
로아름답고「만경화」와
이리간가「여가」의 대
양을協演해 참석자들을
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
다.

主 國樂科 李柱恩君은 4
학년 재학의 10명의
「국악사부」가「한시공포증」의
「한시공포」를 소개했다.



▲ 여흥시간에 가진 모교 國樂科 학생의 연주모습

時論

法學교육과 司法시험改革

文民政府가 들어선 이후 여러 분야에서 改革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分野 한곳에 대

매년 점점 그 選好度가 높아 가는 人文社會科學의 대표적 학과인 法學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 關係당국의 관심을喚起시키고자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改革 운동하는 것이 모두 皮相의 空想佛에 불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法學教育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대로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기에

徐元宇
前 法大 法大長



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면 할 것인가를 놓고 문화국가로 成熟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가 불만

法科大學은 이러한 현상을 결코 容忍할 수 없고, 오히려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사회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司法制度를 健全하고 法律家를 養成시킬 것인가? 국민을 위한 司法가 아니라 법률가를 위한 司法인가? 법을 위한 司法인가? 법을 위한 司法인가? 법을 위한 司法인가?

이러한 현실적인 實利打算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무슨 설명이 있을런지 의문이다. 게다가 조그마한 노력만으로도 司法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講義를 외면하고 新林洞溪谷에만 2만이 넘는 考試準備生들이 몰려있는 이

의 과감하고도 전근대적인 대책 강구에 나설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學界에서도 全國法科大學長協會나 韓國法學教授協會 등을 중심으로 비관적인 法學教育制度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연구되고있고, 더러는 직접 간접으로 政府에 건의되기도 있었다. 오늘날 情報化, 國際化,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法學教育의 내용과 방법의 舊態依然하고千篇一律의 司法考試爲主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司法시험이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학교육이 司法시험에 맞추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부분 大學에서 實情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엄

教育개혁 次元서 시급한 조치 있어야

大卒者에 應試, 受験연령·回數제한 필요
硬直된 思考로 半身不隨 집단 형성 우려돼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일고도 그러하지 않을 때까지 고집한다. 그것은 장차 이 사회를指導해 나가는 高級人力의 管理 내지 그 육성에 관한 改革이다.

물론 教育改革이란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入試를 教育不正의 正 證가 고지이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비전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여기서 교육정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법學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하라고 느껴서인지 最高水準의 成績을 가진 학생들은 法大에 몰리고 있다. 法大에 들어오면 司法試驗 때문에 진정한 교육다운 法學教育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차원에서 그냥 두고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들을 잘 誘導해 나갈 바람직한 방법이 정말 진지하게 研究檢討되지 않으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우려되는 것은 결코 필자의 과장이나 과언이 아니다. 改革의 중요하지만 다스리는 자는 階層 自身이 改革되지 않으면 그 改革도 口頭禪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선 學界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法學教育의 잘못 내지는 문제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眞正한 反省에서 바람직한 改革의 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政府當局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人力政策의 人 차원에서

新林洞 2만명 考試준비, 法學전공생에 資格 국한 바람직

단순히 종래와 같은 學者養成을 위한 것이 아니라 學部課程에서 履修할 수 없으면 서도 사회적인 수요가 큰 특수분야의 법률 분야에 있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專修코스 같은 것을 마련함으로써 슬슬 고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大學校가 이른바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전환하는 길도 이러한 맥락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司法試驗 자체도 法學教育의 정상화와 같은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司法試驗은 오늘날 전문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專門職業人을 양성하기 위한 專門試驗으로 大學에서 法學도 正當성으로 공부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獨學者나 大學의 在學生이 數萬名씩 司法試驗에 매달리고 있다면 國家의 次元에서 보면 人力浪費이고 대학에서의 교육의 意義도 애당초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司法試驗은 醫師나 藥事試驗처럼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에 정지 이상에 대한 수험자격을 한정시켜야 할 것이고 과목적인 成績評價制를 前提로 하는 學校內申成績의 고려, 대학에서 正當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應試할 수 있도록 하는 法學專門科目으로 이루어지는 本試驗 1회만으로 筆記試驗을 치르게 함으로써 試驗實施에 따른 人的 節約을 도모하는 것, 受驗年齡과 受驗回數의 제한 등 여러가지로 고려할 점이 적지 않다.

우리는 바야흐로 國際化의 專門化의 시대에 들어와 있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슬기로운 시도 없이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다. 法學教育, 司法試驗, 司法制度, 이 서로 맞물린 複雜한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改革에 진입할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은 새해의 꿈은 한결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

司法試驗 자체도 法學教育의 정상화와 같은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司法試驗은 오늘날 전문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專門職業人을 양성하기 위한 專門試驗으로 大學에서 法學도 正當성으로 공부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獨學者나 大學의 在學生이 數萬名씩 司法試驗에 매달리고 있다면 國家의 次元에서 보면 人力浪費이고 대학에서의 교육의 意義도 애당초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司法試驗은 醫師나 藥事試驗처럼 원칙적으로 대학졸업에 정지 이상에 대한 수험자격을 한정시켜야 할 것이고 과목적인 成績評價制를 前提로 하는 學校內申成績의 고려, 대학에서 正當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應試할 수 있도록 하는 法學專門科目으로 이루어지는 本試驗 1회만으로 筆記試驗을 치르게 함으로써 試驗實施에 따른 人的 節約을 도모하는 것, 受驗年齡과 受驗回數의 제한 등 여러가지로 고려할 점이 적지 않다.

回顧與展望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國際環境에서 국제화되고 있고 새로운 經濟戰爭에서 불꽃이 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기려면 이재를 길러야 합니다. 서울大學校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안목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대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역을 들면 他大學 출신의 의사나 학자나

金樂國.. 동창회의基本事業
증제일 큰 것이 母校發
展, 會員相互間의 親睦인
다. 모교 재학생에게 獎學金

水準의大學을育成하기 위해서도 政府가 決心한 해준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科學技術研究基金과 같은 것은 投資價值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時日內에 5배 내지는 10배를 벌어들일수도 있다고

는 우리로서는 물론 가능성이
다 타진해 보아야 하지 않겠
습니까?

金哲洙.. 앞에서 母校와
同窓會의 紐帶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처음에는
모교에서 동창회에 참여하기
대응인데 동창회에서 한 것이

동양회가 지향하는 團合, 協同, 參與의 품을 보여 황천하를 이루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제가 넘어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登山大會에서도 인쇄장치가 많이 부족하여의 참모를 하도록 수 영은 장치를 다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母校 寄與입학제 도입 잠정적 연구과제

가 제대로 잘 된 나기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20만 동문 중에 6만여부가 發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꼭 주

崔靑林.. 配付하는 부수를
늘리는 것은 좋으니라. 복니
다.

鄭宗澤.. 그런데 그 配布
가 제대로 잘 된지가 제일
무제인이다. 지금 20만 불
중에 6만 불이 變換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쫓으

[illegible]



▲李善熙 (54년) 音
大卒. 心身
障礙者宣
教協議會
長. 21년

달 15일 서울을 출발할 예정인
선생님께서는 장애훈련교과
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장애훈련대회 및 자선콘
서트에 참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崔鍾起 (54년) 法大卒. 母
校教授. 韓國國際關係研究所
理事. 21년. 11월 11일
관계연구소와 불가리아 사회
정치연구소의 국제자문위원
으로 추대됐다.

▲李達鍾 (55년) 文理大卒.
서울대藥大教授. 21년. 11월 11일
岐阜大學 助教授로 「한국 최
근세 정치사」란 제목으로 특
聘.



▲朴元根 (58년) 工
大卒. 金星
電線社長.
本會理事.

날 9월 서울 여의도 全經
聯회관에서 열린 제8회 「벤
치기인」 시상식에 참석.

▲韓再根 (58년) 工大卒. 中
小企業振興經營者協會會長. 21
년. 11월 11일 「중앙일보」 중
간신문사 부장직을 맡고 있다.
12월 13일 「한국사회문화연구
원」 운영이사에 선임.



▲崔公雄 (62년) 法
大卒. 서울
家庭法院
長. 本會理
事. 21년

입문과편찬의와 함께 「새
출판」을 창간하고 있다. 「새출
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정
에서 신임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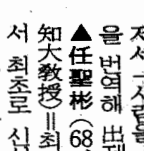
▲崔公雄 (62년) 法
大卒. 서울
家庭法院
長. 本會理
事. 21년



▲梁性喆 (64년) 文理大卒.
慶熙大教授. 21년. 11월
의교안보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정중에서
회장으로 선임.

▲梁性喆 (64년) 文理大卒.
慶熙大教授. 21년. 11월
의교안보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정중에서
회장으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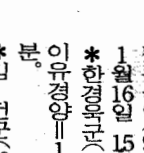
▲崔勝夫 (64년) 文理大卒.
前韓國勞動教育院長. 21년. 11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에
임명.



▲任聖彬 (68년) 工大卒. 明
知大教授. 21년. 11월 11일
서 최초로 신설된 교통대학
원 초대원장에 취임.

▲任聖彬 (68년) 工大卒. 明
知大教授. 21년. 11월 11일
서 최초로 신설된 교통대학
원 초대원장에 취임.

▲張浩完 (69년) 文理大卒.
母校教授. 21년. 11월 11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를 주관.



▲金大中 (70년) 南大卒. 前
東洋麥酒常務. 21년. 11월 11일
원주조임시주에서 대표이
사직에 취임.

▲金大中 (70년) 南大卒. 前
東洋麥酒常務. 21년. 11월 11일
원주조임시주에서 대표이
사직에 취임.

▲朱貞姬 (71년) 農大卒. 圖
서. 21년. 11월 11일

韓國科學賞 大賞수상자 徐正憲 교수



本賞의 대상수상자가
오기는 1회 때 이후 6
년만에 두번째이다. 한
분야에서 국내자 50명
하고 있다. 「한인」은
「한국의 노벨賞」으로
불리는데 제4회 韓國科
學賞大賞의 수상자

술에 생기는 독소 파괴
용 의약품개발, 화학전
에서 유독가스의 除毒
작용을 모방해 탄소가
스로부터 독물을 만드는
일 등의 현재 연구되는
분야이다.

徐正憲은 이러한 원리
를 응용, 핵산기수분해
효소에서 3개의 국내
특허를 얻었고 이 특허
가 산업화될 수 있는 시
기는 5년 정도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徐正憲은 이러한 연구
업적은 「미국化學會」에서
발간한 「화학연구」
논문이라는 학술지에 게
재됐다. 이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해당분야
에 있어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인정받게 되며
또 그 분야가 현재 세계
적인 연구활동에서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
행한 연구결과만으로 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는 부족한 점이다. 또
한 외국학자들이 徐正憲
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사제가 최근까지 1백건
가까이 확인되고 있다.

徐正憲은 87년에 무기
유기화학분야에서의 새
로운 연구결과를 개척한
공으로 제1회 한국과학
상장학금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대상까지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하게 「한국의 노벨賞」
化學者가 된 셈이다.

대화학자(중화학)로 모
교에서 무기화학을 연구
하고 있는 부인 白明姬
동생(71년) 文理大卒. 모
교 화학교육과 교수으로
부터 인공효소연구의 영
감을 받기도 한다는 徐
正憲은 「한인」도 계속
생태를 모방해서 질염치
료를 위한 핵산기수분해
나 나트륨염의 유도체를
유출물 등 여러가지 인
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徐正憲은 대구출신으로
모교 화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
위를 받은 후 노스웨스
턴대 생화학과 연구원을
거쳐 77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교육부
기초과학선진기지원회
간사와 대한전기기술위
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
다.

徐正憲은 대구출신으로
모교 화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
위를 받은 후 노스웨스
턴대 생화학과 연구원을
거쳐 77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교육부
기초과학선진기지원회
간사와 대한전기기술위
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
다.

訃音

▲盧善敬 (27년) 京城齒科醫
學校卒. 獨立運動家. 醫師. 21
년. 11월 13일 노환으로 별세. 한
자택에서 수환으로 별세. 한
년. 1백세. 韓僑노 수환대
생. 善敬은 國府총리(盧)
의인한 桂國 盧伯麟선생의
장남으로 18년 「조선국민회」
에 가입, 활동하다 유교를
치렀으며 만주로 망명생활도
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17일 자택에서 발인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

▲李昌九 (28년) 水原高等農
林學校卒. 21년. 11월 13일 서
을 영등포구 영인동 장미
아파트 A동 303호 자택
에서 노환으로 별세. 韓僑
89세. 李昌九은 한국농림
학의 개척자로 모교 농대교
수, 코리아엔지니어링고교
한국기술사회 회장을 역임했
으며 韓國農學會 회장이었다.

▲許善道 (53년) 文理大卒.
國民大名譽教授. 21년. 11월
13일 서울영등포구 영인동
에서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
세. 韓僑 67세로 유서교수.
국민대문과대학장을 역임
했다. 국사학자로서 민족의
란 연구에 큰 공헌을 남긴
고인은 「韓國軍制史」 「韓國
火器發達史」를 비롯, 많은
저서를 남겼다.



人工酵素연구로先進國 진입 生命과학등 技術분야에서 광

로 선정된 徐正憲은 문
(71년) 文理大卒. 모교 화
학과 교수. 현재 생화학의
모든 화학반응에 관여하
는 효소가 인공효소의 촉매
작용을 모방해 새로
운 인공효소를 만들어내
는 인공효소 연구분야에
있어 선구자적인 업적을
이룩했다.

科技處가 노벨賞에 노
전하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세계정신수
준에 도달하도록 격려키
위해 「한인」 마련한

의 추천을 받아 다시 외
국碩學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심사절차가 까다로운
本賞에서 대상을 수상한
徐正憲은 「한인」 「유기
반응」에 대한 「국속」의
루이스산 촉매작용. 무
리 분과 같은 생화학
에서 그 공헌을 포함한 이
영들이 어떻게 촉매작용
을 하느냐. 반응 부분이

효소처럼 정교하고 활동
성 있는 촉매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공효소를 만들
게 되면 생체유사물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며
실용적인 응용연구로 이
어나면 의화, 생명과학
등 많은 과학기술분야의
광범위한 문제해결에 기
여할 수 있다. 가령 수

美術술지「化學研究논문」서 세계적 권위 인정

徐正憲은 대구출신으로
모교 화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
위를 받은 후 노스웨스
턴대 생화학과 연구원을
거쳐 77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교육부
기초과학선진기지원회
간사와 대한전기기술위
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
다.

徐正憲은 대구출신으로
모교 화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에서 박사학
위를 받은 후 노스웨스
턴대 생화학과 연구원을
거쳐 77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교육부
기초과학선진기지원회
간사와 대한전기기술위
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
다.

▲孫寶基(47년 文理大卒·韓國先史文化研究所長·本會理事) 22日 7일 연세대 알관에서 「석장리 선사유적」출판기념회를 개최.

▲安明柱 (56歳) 大卒 油公
社長・本會理事

▲李初植(58년 文理大卒)
高麗大教授 11월 11일
泐巖기념사 입회
「열화회」 제12회 수상자
로선정돼 대우재단 18층 감

▲柳錫烈 (62日) 大卒 外交
安保研究
院教授 本
會理事

합동추진위원회(聯合推進委員會)의 자
회사인 大明建業의 주총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사장
에選任.

▲崔相哲(64년 行大院卒:
母交敎受)이 지난날 6월 1일

최근 무하의 달을 맞이해 출
판인쇄 유공포장으로 문화체
관인쇄 유공포장을 수상.
유부 장교상을 수상.

▲尹大根(72년 工大卒·前
東部製鋼副社長) 11월 12일 동부

합동추진위원회(聯合推進委員會)의 자
회사인 大明建業의 주총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사장
에選任.

▲崔相哲(64년 行大院卒:
母交敎受)이 지난날 6월 1일

최근 무하의 답을 맞이해 출판이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관인쇄 응용포장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受賞.

▲尹大根(72년 工大卒·前東部製鋼副社長) 11월 12일 동부

한등 43명이 맹목의 충인 데, 특히 「法大58학년 선 두주자」로 자타가 인정하 는 金湊春 前法務部長官은

支援

학창시절부터 두각을 나타 냈었고 徐廷信(前서울고검 장) 鄭城鎮(前부민주원 장) 魯勝行(前光州지검장) 도 계속 활동중.

政界에 康祐赫(民自黨) 柳興洙(民自黨) 金榮珍(民自黨) 車秀明(國民黨) 瑋鉉(國民黨) 등 6명의 國會議員과 林寅澤(前교토장 관) 李相培(前서울시청) 등 이 많고 또 도하 매스컴에 서 「서울대 法大58학년 全盛時代」라고 특별히 보도한 바 있다.

한편 財界에 鄭之允(한구산업) 鄭宗植(비록 鄭之煥의 弟) 鄭大표(이시李李鎔) 등도 많이 있으며 李基(대우화학 사) 韓榮洙(포항제철) 등도

부사(尹誦求) 상무(申昌求) 차부사장(金允植)을 차 지하고 있다.

學界에 申弘(서울市 立大총장) 비록 金光雄(고교 행정대위원장) 姜二秀(崇實大위원장) 羅慶植(慶南大 행정대위원장) 徐敏忠(南大법교수) 田秀(光云대 부사 회대위원장) 趙永建(慶南大 교수) 등이 후진양성에 주 려하고 있으며 言論界에 金大中(우월朝鮮日報) 金景澈(中央經濟日報) 朴正(崔相泰) 서울經濟新聞 編輯장 등이 남의의 활 약중이다.

한편 지난 3월16일 모 교 法學硏究棟(공식)에서 는 3백여명을 지원하는데 등 모교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데 현재 4천여명의의 공 동기(동문회)를 모뎌(1인원)를 확보하는데도 장 학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李基(이시)의 구별이 있다.

피로·알콜過多·過食 등으로 발생

양산의 배설물 처리하기
프로베네시드를 자기산이나
염산으로 용해한 양산용액을
감소시켜 양산용액을 적당
량으로 더 넣고 용액이 보일
양산용액의 크기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부식성이 강하
피를 마그네슘을 방지하기
기 위하여 불활성 질소나
합당한 조건의 제거를
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염산과 양산의 파괴로 인
질 나트륨을 사용하여 시
정제 과정 중 양산의 시
하중과 양산의 양을 줄여
노출을 줄인다. 또한, 이
경우에 微細群 30% 이하의
중이 불활성인 수산화 나
트륨을 용해하는 수산화 나

年會費 내주시분

理事 11월16일 ~ 12월11일
一般 11월16일 ~ 12월11일

人名 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會長團

- ▲부회장 金相慶 50만원
- ▲부회장 高在淸 50만원
- ▲부회장 徐廷和 50만원
- ▲부회장 李埈鎔 50만원
- ▲부회장 李炳宣 30만원

冠岳會

- ▲이사 張翼龍 30만원

常任理事

- ▲崔永喆 문리대총학생회장 20만원
- ▲金瑞鳳 미래동창회장 10만원
- ▲李春根 치대동창회장 20만원

理事

- ▲家政大學
- ▲看護大學
- ▲工科大學
- ▲農科大學
- ▲文理科大學
- ▲美術大學
- ▲法科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李正姬 50만원
- ▲崔海珠 50만원
- ▲金瑞鳳 50만원
- ▲李春根 50만원
- ▲李純炯 50만원
- ▲李澈求 50만원

大學院

- ▲權成哲 50만원
- ▲盧隆熙 50만원
- ▲尹東植 50만원
- ▲宋向學 50만원
- ▲文鍾洙 50만원
- ▲李文浩 50만원

經管大學院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人文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구분

一般會員	1만원
理事	5만원
常任理事	20만원
監事	30만원
副會長	50만원
會長	100만원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 ▲金永喆 50만원
- ▲金孝榮 50만원
- ▲師範大學

[illegible]

母校

學事日程 學事日程

갑 ▲내년 1월 6~7일
 94학년도 大學新入生選拔
 考査 ▲2월 21~25일 94
 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 ▲2월 26일
 93학년도學位수여식 ▲2
 월 29일 휴가(중단)

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公
開採用하는 專任講師、助
教授등 下位職에게 재임용
이 아닌 契約制를 기본방
침으로 한다는 것이다.

母校교무처장인 白忠鉉
교수는 契約制가 실시되

學制 등 관계 법령 개정 우선돼야

을 걸듯중언인 것으로 알려
졌다.
母校는 현재 公孫, 再任
用, 停年보장, 停年퇴임의
4과제로 구분되어 있느
다. 우선 내년부터 채용을
추가, 우선 내년부터 채용을
하는 碩座교수에게 적용하

수제 도입을 위해 교육과
무원법, 학칙 등 관계법령
의 개정을 교육부와 협의
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국내최초 試驗管 송아지 탄생

獸醫大黃禹錫교수개가

지나달 9월 모교 獸醫
大黃錫교수(大南卒)는
優良牛의 未成熟卵子를 채
취 體外受精의 方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되고 있는 상태이다.

법(法) 遺傳의 方法이
우수한 소의 改良을
가치케 하는 기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定着
되고 있는 상태이다.

黃교수의 이런 凱歌는
개방양돈을 받고 있는 우리
농가에 큰 희망이 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資源技術研
ぎ 公

來年末 완공예정

지난달 18일 에너지資
源新技術研究所(소장玄炳
九)에서는 44棟의 에너지資
源新技術研究所(소장玄炳
九)를 기공식을 가졌다.

新築齒科병원 개원

연건평5천, 1백10억원들어

지난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 2백여명의 동문과 관계자,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大病院 신축 치과병원이 개원식을 가졌다.

齒大연구재

齒大연구재단 발족

徐永圭 1천만원 출연
前회장

최근 齒科大學(학장) 李
種(은 徐永美 45년) 齒大
卒前 齒大(동생)의친 齒協
고무(은)로부터 치과대학교
유연구재단 기금으로 1천
만원의 출연비를 받게 등
무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기금을 받았다.

齒科대학의 지난 9월
「齒大教育研究財團(가칭)」

을 발족키로 결정하여 洪
炳俊(82년卒)등이 1천
만원, 金永昊(49년卒) 美
터프 齒大교수로부터 3백
만원의 출연비를 받았다.

현재 재단설립을 추진중인
齒大에서는 동문들의 獻金
을 은인으로 전수하고
있다.



▲지난 11월26일 개원한 서울大 치과병원



羅山그릅 安秉均 회장 40억 들여
 既婚大學院生기숙사 新築寄贈

財財에서 自手成家型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羅
山그를 安秉鈞 92년 最
高經營者課程修了 회장
이 409원을 出捐, 母校
에 既婚대환원금을 위해
기숙사 2개동을 지어
기증으로 했다.

安희장이 15평형 아파트
이 海外로 流出되는 것

安희장이 기숙사를 기
증기로 한 것은 89년 모
교 十大 최고사업전람회
장과 92년 최고경영자과
정을 수료하면서 모교에
나타는 관심과 인연을
맺으면서 학업 및 研究
興件 未備로 高級頭腦를
이 海外로 流出되는 것

新規교수 발표회
人文科學硏, 주최

다. 12월말 완공될 예정인 신기술연구소는 연면적 8백54평 규모의 건물로서 94

예술문화 발간

藝術文化研究

최근 人文大學 附設 藝術文化研究所(소장 金文煥)에서는 화술지「예술론 화」제3집을 발간했다. 푸트루모니즘 논의의 한국적 전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특징으로 한 이 3집에는 李廷鎬(英文學科)교수, 吳世榮(國文學科)교수, 徐友錫(普大學長)교수, 金文煥(美學科)교수 등의 글들이 실려있다.

을 평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主力기업 羅山實業과 나산중공업건설, 나산광광개발을 거느리고 있는 패기있는 實業人으로 의류부문에 外國의 유명브랜드에서 자를 하는 로열티에 거부감을 갖고 수조수십만달러로만 사업을 키워온 고집을 보여주기도 했다.

의류전문업체인 나산실업에선 北京에 단로매장을 설치했고 중국 대도시를 비롯 파리, 밀라노와 유럽, 동남아에도 지사를 세우고 있다.